

“38년째 소리 인생 늘 새로운 시작일뿐”

아름답다면 해였던가. 소리관에서는 전설처럼 불리는 임방울의 협률사가 목포에 들러 춘향전을 공연했던 것은 이 공연이 어린 박길현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임방울선생이 이도령역을 맡고 김옥련이 춘향역을 맡았는데, 춘향이 너무 예뻐요. ‘이 다음에 커서 나도 춘향이 돼야지’ 마음먹었죠.”

박계향(57, 판소리명창)을 40여년 뒤집의 소리꾼으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였다. 협률사(協律社)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공연무대인 원각사(圓覺寺)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되자 국악인들이 임의로 만든 순회공연단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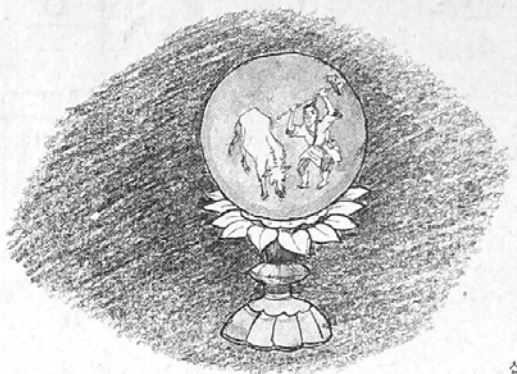
목포가 고한인 그에게 어려서부터 ‘끼’가 다분했다. 틈만 나면 아버지의 유성기를 돌려 이화중선의 ‘추월은 민정하야 산호처럼 비치어를 제...’로 시작

것이 아니예요. 한국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도 이 피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했다. 소리에 남다른 재주를 보여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았지만, 막상 소리를 배우겠다고 하자 아버지의 반대가 대단했다. 그때만해도 판소리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유랑극단의 가설무대에 서거나 술방에 갈박에 없었다. 극단에 들어가도 일정한 거처없이 떠돌아야 했다.

“어떤 부모가 고생같이 뻔한데 반대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그때 ‘네가 소리하면 비상을 먹겠다’며 안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반대에 누그러뜨렸던 뜨거움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다. 열여섯 살 되던 해 아밤을 틀러 집을 뛰쳐나왔다. 보성소리의 종가(宗家) 정음민 선생을 찾았다. 당시 그곳에는 조상현



실화 · 이기선

교수살부 하늘·땅 경노할 때론

세상이 갈만들 갔는가. 인간이 막다른 벼랑에 부딪쳤는가. 마음이 병들대로 돌아 버렸는가. 온 세상이 모두가 암투성이다. 암을 치유할 능력도 없이 암의 세균을 온 세상에 퍼트리 버렸으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엽기적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대인이 일어났다. 어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단 말인가. 하늘과 땅이 함께 경노할 일이다.

부모와 단란한 가정을 이룬 가정이다. 또한 서양의 지식도 갖출만큼 배웠고, 지금의 직업이 교수이다. 한결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인격이 사회적으로 부여되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부러워 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한 행운자이다. 앞으로 금룡학원을 경영하게 될 후계자이며, 온갖 행운과 명예를 향유 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행위를 상도 하였을까. 김교수의 본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악마의 신에 유혹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 악마가 누구인가. 무명 삼목이다. 암흑 천지에는 일체 공간이 칠흠이다. 앞뒤가 보이지 않는다. 막힌 공간을 찢어 보면 어둠이 하고 무명의 박에다 찬칼을 찔렀다.

존속살해 최대죄악

이번 S대 김교수의 행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금수도 못하는 일이다. 41세의 나이는 정장을 나이고 사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며 또한 교단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으니 지도자급이다.

학생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은 누구보다 학식과 덕망이 구비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내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여 도미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상당한 자질이 겸비된 인물이다. 또한 집안도 불우한 형편이 아니고, 아버지는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10

회급

어떤 극악한 경우가 닥쳐 오더라도 최후의 순간에 생명을 대하게 되면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이 앞서야 하는데 단말미적인 총악성이 폭발하였는가.

사람이 살다보면 뱀고비의 난항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난항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해결하려는 슬기를 찾아내어야 함이 정칙의 인간사이다.

이 정칙의 일리를 빛나게 되면 바로 인간은 야수가 되고 악마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제 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 연건에는 부모를 살해방화한 朴滄熙 이 있었다. 이때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군은 20대라 정신적 미숙으로 광인적 행위를 자행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김교수는 유복한

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극악 무도한 대역죄인의 일들은 한 사람으로 축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데 남의 일이라고 사자시만 할 것인가.

돈에 눈멀어 天倫을 끊다니 효순 일깨우는 계기 삼아야

6시간 동안 관객을 붙들어놓기 위해서는 판소리의 흐름에 맞춰 슬픈 대목을 할 때는 내가 먼저 울어야 하고, 즐거운 소리는 자절로 어깨춤이 추어져야 해요. 춘향전만 해도 70여명의 인물이 등장 하는데, 춘향이기도 되어야 하고 이도령, 춘향모친, 향단이기도 되어야 해요. 따라서 보통 20년은 넘어야 부채치고 남들 앞에 설 수 있죠. 3, 40년은 꽤야 자기소리라고 내놓을 수 있죠.”

오늘의 불교

어떤 극악한 경우가 닥쳐 오더라도 최후의 순간에 생명을 대하게 되면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이 앞서야 하는데 단말미적인 총악성이 폭발하였는가.

사람이 살다보면 뱀고비의 난항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난항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해결하려는 슬기를 찾아내어야 함이 정칙의 인간사이다.

이 정칙의 일리를 빛나게 되면 바로 인간은 야수가 되고 악마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제 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 연건에는 부모를 살해방화한 朴滄熙 이 있었다. 이때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군은 20대라 정신적 미숙으로 광인적 행위를 자행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김교수는 유복한

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극악 무도한 대역죄인의 일들은 한 사람으로 축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데 남의 일이라고 사자시만 할 것인가.

오탁말세 조짐인가

사바세계는 무서운 세계가 되었다. 옛날의 사바세계는 고몽만이 현전하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부모를 살육하고 살상하는 일들이 한층 늘어나니 오탁말세의 조짐인가. 아니다. 우리들은 범람강에서 말한 효순심(孝順心)을 장양하여야 한다. 효는 받들어 공경함과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다.

정말 김교수 당신이 부모를 살해했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소. 참으로 당신이 살해하였다면 당신은 사람으로서 이수리의 대역죄인이 되었소. 부디 대역죄의 사슬을 참회로서 극복하고, 이웃에게 지비효순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오.

산문박의 100년

판소리 명창 박계향 씨

아버지·남편 반대 극복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 수상 “다섯마당 완창 죽는 날까지 할수 있을지...”

작되는 판소리를 들었다. 훗날 그녀에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의 영예를 안겨준 ‘실청가’의 ‘심봉사 황성가는 대목’이었다. 학교에서 노래시간이면 이 노래를 불렀다. 동네에서도 노래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러나 소리꾼으로 들어서기까지의 숱한 곡절은 선배명창들이 모두 그러했듯 예비되어 있었다. 삶을 온통 내던져야 하는 숙명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혹자는 ‘예술의 길은 도박’이라고 말한다.

씨가 정선생으로부터 춘향가와 심청가를 배우고 있었다.

3개월만에 고모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사진이 붙은 전단을 만들어 파출소마다 돌리는 등 한비탕 난리가 스퍼치기 되었다. 아버지는 그를 방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그러나 볼속에 흐르는 피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귀에 들리는 건 소리 뿐이었고, 급기야 병마가 찾아들었다. 문여달는 소리에 도 깨부러치고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심장병이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딸의 길을 열어 줬다. 목포국악원에 입학해 소리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임춘영국악단’ 국창 김연수선생의 ‘자랑국악단’ ‘우리국악단’을 거쳐 소리과 연극을 배웠다. 남도근선생도 배움을 수 없는 스승이다. 이때도 무각을 보여 ‘소리의 신동이 출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렇게 좋아하던 판소리를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산 적도 있었다. 결혼과 가난으로 소리공부를 할 엄두를 못낼 때였다. 한때는 먹고살기 위해 신실종 무교동 용산 등지를 떠돌며 식당을 운

영하기도 했다.

다시 판소리를 시작하려 했을 때, 이번에는 남편의 반대가 극심했다. 남편 물레 박초월선생을 찾았다. 수강로를 못내 쉬는 날도 많았지만, 선생의 열창하는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려 견딜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락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목을 다듬었다.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남편이 간단하게 “미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할 일은 오직 소리뿐

87년이었다. 내리 이태를 본산진출과 장려상에 머물던 끝에 국악계의 최고 영예인 장원을 안았다. 제3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부문 대통령상.

“판소리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의 할 일은 소리 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박계향 명창의 다음 할 일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마당 완창발표회를 갖는 것이다. 춘향가는 90년과 91년 완창공연을 가졌다. 완창은 보통 여섯시간이

주위선 고생길 만류

박계향씨 스스로도 가끔 자신에게 묻는다. “무엇이 그리 좋아 소리를 하려고 했을까...” 남들로부터 명창이란 칭송을 받으면서도 이 질문은 그를 따라 다닌다. 대답은 없다. 말로써 구해지지는 답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딱히 대답이 된다면 ‘한국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소리에겐 말로 표현 못할 묘미가 있어요. 가령, 진도이리랑 하나만 갖고도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합니다. 어려운

씨가 정선생으로부터 춘향가와 심청가를 배우고 있었다.

3개월만에 고모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사진이 붙은 전단을 만들어 파출소마다 돌리는 등 한비탕 난리가 스퍼치기 되었다. 아버지는 그를 방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그러나 볼속에 흐르는 피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귀에 들리는 건 소리 뿐이었고, 급기야 병마가 찾아들었다. 문여달는 소리에 도 깨부러치고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심장병이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딸의 길을 열어 줬다. 목포국악원에 입학해 소리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임춘영국악단’ 국창 김연수선생의 ‘자랑국악단’ ‘우리국악단’을 거쳐 소리과 연극을 배웠다. 남도근선생도 배움을 수 없는 스승이다. 이때도 무각을 보여 ‘소리의 신동이 출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렇게 좋아하던 판소리를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산 적도 있었다. 결혼과 가난으로 소리공부를 할 엄두를 못낼 때였다. 한때는 먹고살기 위해 신실종 무교동 용산 등지를 떠돌며 식당을 운

할 일은 오직 소리뿐

87년이었다. 내리 이태를 본산진출과 장려상에 머물던 끝에 국악계의 최고 영예인 장원을 안았다. 제3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부문 대통령상.

“판소리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의 할 일은 소리 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박계향 명창의 다음 할 일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마당 완창발표회를 갖는 것이다. 춘향가는 90년과 91년 완창공연을 가졌다. 완창은 보통 여섯시간이

올해로 그는 38년째 소리인생을 살고 있다. “아직도 공부야 모자라요. 죽을 때가 되어서 뭐가 될지 모르죠.”

그가 전무후무한 한국 최고의 목소리로 추앙했던 임방울은 ‘수궁가’를 부르던 중 무대에서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목숨은 건졌으나, 임방울은 수술을 거절했다. 소리꾼으로서 생명이 끝난 이상 육신의 생명유지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박계향도 무대에서 삶을 마치기를 소원한다. 소리가 좋아 미치도록 살아왔으니, 모습도 그려야 한다는 고집이다.

(정성운 기자)

광복 50주년 국태민안 남북평화통일 속성취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한국불교선사 스물한분 초청 21일간 대법회

禪은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근원이 되어줄 고귀한 진리입니다.

이 시대는 올바른 가치관의 상실과 인간존재의 뿌리를 망각한 도덕성의 결여로 물질만능에 밀려 정신 세계의 황폐함 등으로 가득차 참된 자기 구원이 어려운 때입니다.

인간이 참된 자기를 모르고 한생을 산다는 것은 삶을 덧없이 소비할 뿐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끊임없는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번 해운정사 금모선원에서는 제방의 선사스님 21인을 모셔서 고귀한 선법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고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본주의가 세계인의 삶의 지표가 되게끔 선법회를 여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사람이 진리를 찾는 길을 올바르게 알아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자기의 설 곳을 분명히 관찰하면 지혜의 광명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개개인이 세계화의 일조로 기여하게 될 것이오니 많은 분들이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대안락의 양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39년 2월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진제 합장

초청 법사님

양력 3.31	진제	큰스님	해운정사(조실)
4.1	승찬	큰스님	승광사(명장)
4.2	대정	큰스님	범어사
4.3	활안	큰스님	천지암
4.4	해구	큰스님	남국선원(선운정)
4.5	도원	큰스님	고운사(조실)
4.6	원담	큰스님	수덕사(명장)
4.7	암도	큰스님	심원사
4.8	월주	큰스님	조계종(총무원장)
4.9	우룡	큰스님	학성선원
4.10	화삼	큰스님	보광선원
4.11	보행	큰스님	팔달선원
4.12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4.13	정일	큰스님	선학원(이사경)
4.14	월탄	큰스님	용화사
4.15	근일	큰스님	무석사
4.16	혜정	큰스님	법주사
4.17	무진	큰스님	동화사
4.18	혜인	큰스님	인천사
4.19	혜홍	큰스님	송광사
4.20	승산	큰스님	회계사

법회일시
1995년(양)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매일 오후 2시)

법회장소
해운정사(해운대여상 옆)

주최
해운정사선도회

후원
BBS 불교부산방송 • btv 불교TV
부산불교 각 신행단체

문의
(051) 746 - 2256, 746 - 4812